

생태학적 가정복지 모형의 적용으로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심리적 복지 분석

전효정[§]
경성대학교 생활경영학과[§]

An Application of Ecological Family Welfare Model on Stress Coping Strateg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eon, Hyo Jeong[§]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Kyungsung University, Pus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university freshmen's stress coping strateg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o applying ecological family life welfare model. Based on Bronfenbrenner's ecological perspective, "ecological family welfare model", which includes person(individual attributes), context(family backgrounds), process(mechanism of development), and time(the specific period), was suggested as a new research paradigm for family welfare life research. The questionnaire study was done for 171 freshmen of an university in Pusan. The results show the suggested research model was significant and effective to explain the mechanism of stress coping strateg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dividual attributes(i. e., attachment style) and family context have an impact 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which in turn affect stress coping strategies which then affect individual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ecological family life welfare model, stress coping strategy, psychological wellbeing,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접수일: 2003년 8월 30 일 채택일: 2003년 9월 9일

§ Corresponding author: Jeon, Hyo Jeong, Dept of Home management, Kyungsung University, 110-1 Daeyeon-Dong Nam-Gu, Pusan 608-736, Korea Tel: 051-607-5043 Fax: 051-611-2448 E-mail: hjeon66@hanmail.net

I. 서론

급속한 산업화와 서구화에 따른 도시화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로 사회의 가치와 구조가 변화하고, 이에 핵가족화, 맞벌이 가정의 증가, 이혼율의 급등으로 가정의 구조와 기능이 급변하고 있다. 전통적인 가정 문제는 주로 생계, 자녀 교육과 관련한 역할과 기능의 결손에서 파생되는 구조적, 기능적 문제였으나, 이제는 확대되거나 방치되는 아동, 입시지옥에 시달리며 방황하는 십대, 증가하는 이혼율과 카드 빚으로 자살에 이르는 성인 세대, 소외된 노인 세대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결손 및 가치관 혼돈이 극에 다다르고 있다. 가정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개별 가족이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지역사회나 국가 차원에서 개입하고 중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이 정상적으로 기능 해야만 사회적 욕구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 기능을 정상화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 가정 복지의 정책과 서비스가 요구된다. 현대 가정에 내재한 아동 문제, 청소년 문제, 여성 문제, 노인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가정의 발달단계와 가족 구성원의 특성에 적합하게 예방하고 중재하고, 나아가 가정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이 절실하다. 우선 이를 위하여 가정복지 증진의 기초가 될 이론적 모형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가정복지에 관련 있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가정의 기능과 복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형은 중요한 메커니즘을 밝혀내어 학문적 연구뿐 아니라 정책입안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현대 가정에 내재한 문제들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이들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고 이들의 역동적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가정복지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를 스

트레스 대처전략과 가족체제와 연결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이론적 배경

인간과 환경을 분리된 실체가 아니라 '환경 속의 인간'으로 간주한다(김중배·권중돈, 1999). 이러한 사회 복지관점은 인간과 환경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영역과 양자간 교류가 진행되는 과정에 관심을 갖는다. 먼저 가정 복지의 정의 및 개념을 이해하고, 인간 발달에서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 모형을 살펴보고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 그리고 과정적 변인으로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 복지의 정의 및 개념

가정 복지란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등 특정한 인을 포함한 "전체로서의 가족(Family as a whole)"을 대상으로 개인 및 가족 생활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사회가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고 가족 생활을 강화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는 사회의 조직적 활동을 의미한다(성영혜 외, 1998 : 조홍식 외, 1997). 이 정의는 가정 복지 사업의 대상은 김양희(2000)의 '한 단위로서의 가족과 그 가족의 가정 생활의 향상' 이라는 관점에 내포된 '확대 개념의 가족이나 가정의 성격'을 지닌 집단까지 포괄하며 또한 전통 가족이외의 다양한 가족생활 단위의 기능을 지지, 보충, 대체해주는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미국 사회 사업가 협회(NASW, 1995)에서 정의한 가정 복지의 주된 목적은 가족 구성원의 대인 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정 생활의 적극적인 가치를 살려 구성원 개개인의 건전한 인품을 발달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만족스럽게 성취하도록 기여함에 있다.

가정생활을 중심으로 한 가정복지개념은 가정 구성원들이 가정생활의 장을 통하여 개별적, 공

통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로써 하루하루의 일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된다는 측면과 맞닿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 속에는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 치료하는 복지기능과 생활의 질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예방과 보장,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복지기능이 다 포함되어야 한다. 진정한 가정복지는 문제가정 뿐 아니라 일반 가정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활동이어야 하며, 예방적, 조정적, 치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유영주, 1995). 그러므로, 가정복지는 가정생활의 부양기능이 전문화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개념으로써, 가정생활 상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의 질적 향상을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실천과정과 그 결과이며, 이로써 가정생활에서의 일상적 삶이 건강하고 주체적이 될 수 있는 토대가 제공될 것이다. 즉 전문화된 가정복지기능을 통하여 가정생활은 궁극적으로 인간생활에 요구되는 복지 활동의 주체가 될 것이며, 가족의 자율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조건을 형성하고, 우리 구성원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양식의 가능성을 제시해 줌으로써, 삶의 범주를 더욱 확대시켜, 결과적으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송혜림, 1999).

가정 복지 사업의 기능은 첫째, 사회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적극적 수립, 둘째, 가족 분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역 사회 보호나 거택 보호의 개발, 셋째, 핵가족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가족 생활 교육의 실시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 복지는 제도적·정책적인 노력과 같은 거시적 측면과 더불어 미시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장인협, 1981).

2) 인간 발달의 생태학적 접근

Bronfenbrenner(1979)는 인간발달의 생태학을 “능동적으로 성장하는 인간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간 일생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호조절 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라 정의하였다. 원래 생태학은 생물학적 유기체와 그 주변의 사회·물리적 환경간에 존재하는 복잡한 상호의존적인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다. 생물학자인 Germain 과 Gitterman(1987)은 유기체의 적응이 환경과의 적합성에 도달하기 위하여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능동적 행동의 결과라고 하였다. 인간도 다른 유기체의 생물학적 적응과 마찬가지로 ‘인접과정(Proximal process)’이라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 큰 생태계에 적응한다. 이러한 과정을 인간발달에서 조망하는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모형은 인간과 동시 작동되는 사회문화적 환경 요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적·통합적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그는 인간 발달의 생태학적 모형 안에서 상호의존적, 동태적 접근구조(nested model)를 제안하고 네 개의 환경체계, 즉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로 명명하고 개념화하였다. 예를 들면, 가족 내에서 아동을 둘러싼 환경으로 부모-자녀의 상호작용과 같은 직접적인 과정인 미시체계로부터 국가와 문화와 같은 사회문화적 배경인 거시체계까지 포괄하며, 중간체계는 다양한 미시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외체계는 아동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으나 그 발달에 영향을 주는 환경으로 부모의 직장과 같은 환경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각각의 영향력은 상호 호혜적 방식으로 작용하나, 그 관계와 영향력은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영아는 직접적인 환경인 미시체계만을 인식하나, 형식적 조작기의 도달한 청소년은 직접적 환경 이외에 대한 사고 능력이 생김으로써 외체계와 거시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Bronfenbrenner에 의해 제시된 생태학 접근은 기존의 환경요인(성별, 종교, 사회 계층, 가족 구조, 출생 순위, 거주 지역, 결혼 여부, 부모 취업 여부, 부모 재혼 횟수 등)만을 고려하는 연구나,

유기체의 특성 요인(개인의 현재와 과거의 성격 특성의 인과 관계 등)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연구의 접근 방법과는 차이가 있다. 가정복지의 실행모델로서 환경 또는 유기체의 특성만을 보는 연구접근법은 한계가 있다. 생태학 모형은 인간, 환경맥락 그리고 과정까지 포함하며, 개인의 상황적 맥락을 포착할 수 있는 생태학적 소영역 (Ecological Niche: 개인이 지역 사회에서 점유하는 공간이나 지위)을 발견하는 데 주력한다. 이 모형은 인간과 환경간 호혜적인 상호의존성을 규명하여 그 둘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 효과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태학적 접근은 가정복지에 관련된 복잡한 쟁점들을 하나의 모형 안에서 조망할 수 있게 해 준다. 즉, 유기체와 환경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호혜적인 적응에 초점을 둘 뿐 아니라, 하나의 체계 안에 더 큰 체계가 포개어 진 겹 구조로 상호 작용적 구조로 형상화되어 있어, 유기체가 직접 경험하는 현실 환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 바로 상호의존적인 체계들간의 상호 작용임을 보여 준다(Bronfenbrenner, 1976). 또한 생태학적 접근은 생활하기에 적합한 환경의 질과 그 질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을 쟁점으로 삼고 있으며, 가족 및 그 구성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데 있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들은 결국 환경 맥락에서 완전히 벗어난 인간발달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윤중희, 2001 재인용). 그러므로 생태학적 접근법은 기존 연구 접근법과는 달리 개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질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존의 국내외 연구들에서 볼 수 있다(윤중희, 2001).

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그 대처전략

스트레스는 모든 인간이 특히, 현대 사회생활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으며, 그 나름대로 이를 해소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

고 적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적 혹은 행동적인 반응목록이 대처전략이다(McCubbin & Patterson, 1986). 그러나 대처전략은 막연하거나 예측할 수 없으며 긴장감을 주는 상황에 대해 단순히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사회적 행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조화를 이룬 개인의 긴장에 대한 반응양식이다. 대처전략은 주로 환경적 요구에 맞는 가능한 자원을 이용하기도 한다. 즉, 청소년은 자신의 자원을 사용하여 자신의 내적, 외적 그리고 환경적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간다. 긴장에 대처하는 노력은 긴장을 줄이거나 없앨 수도 있으며,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재정비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처전략은 긴장이 누적되어 생길 수 있는 부정적인 신체적 심리적 결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다.

대처전략은 청소년기에 발달이 거의 완성된다. Vaillant에 의하면 청소년의 경우 성숙한 방어보다 미성숙한 방어를 2배정도 더 많이 보이는데 이는 청소년기가 대처 양식이 견고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며, 성인기로의 성숙은 청소년기 동안 실험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가능하다고 하였다(Newman, 1979). 청소년기 사용하는 다양한 자원중 개인적 자원으로는 청소년의 성과 연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친척이나 이웃의 도움을 덜 받았으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좌절 상황에 대처하며(윤진, 최정훈, 1989),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 청소년보다 친구의 도움을 많이 이용하며 동료관계가 중요한 사회지지망인 것으로 나타났다(정문자, 정현숙, 1994). 또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고(김민자, 2002), 성격에 따라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으며(김정원, 신은영, 2001), 안정형 애착유형자들이 스트레스 수준과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낮고 더 효율적인 대처방법을 사용한다는(전효정, 이귀옥, 2002)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으나, 이러한 변인들의 상호 작용적 메커니즘을 밝

힌 연구는 없다.

4)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과 심리적 복지

가족체계에 대한 Circumplex model에서 Olson, Russel과 Sprenkle(1979, 1983)은 가족을 가족 응집성과 가족 적응성의 2가지 차원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가족 응집성은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의 또 다른 구성원들에게 느끼는 정서적 유대'로 가족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외부 환경에 대하여 개방적인지 아니면 소외되어 있는지를 뜻한다. 가족 적응성은 '상황적, 발달적 스트레스에 대응하여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규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족체계의 능력'으로 정의된다. Minuchin(1974)은 스트레스가 종종 가족 내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야기하게 되는데, 건강한 가족은 스트레스에 더 적응적이고 융통성 있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청소년기 자녀관계는 응집성과 적응성이 균형 잡힌 가족체계 내에서 작용할 때 문제가 더 적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Circumplex Model에 입각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살펴본 연구들에서 균형 잡힌 응집성과 적응성을 가진 가족이 극단적인 가족보다 더 적절한 기능을 보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보이며(민혜경, 1990), 응집성이 높은 가족이 부모-자녀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적었으며(전귀연,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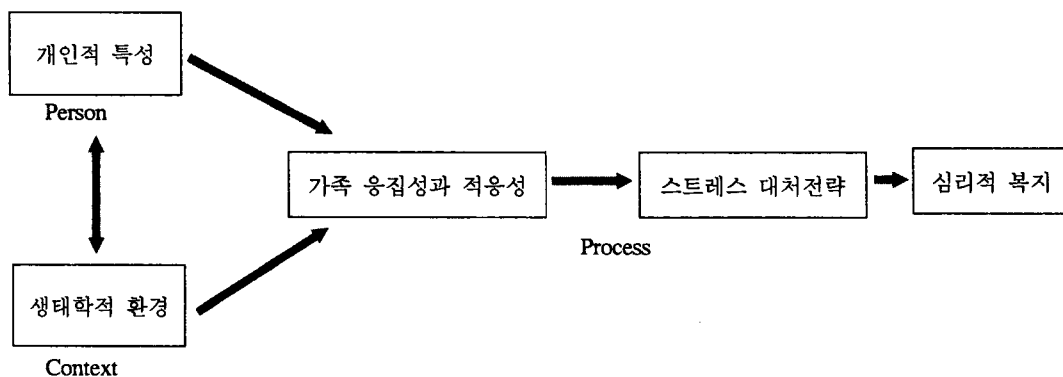
보가, 1993),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친척과 이웃의 도움을 받는 대처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정문자, 정현숙, 1994).

개인의 심리적 복지란 가정 및 주위환경 등 물리적 환경과 대인 관계 등의 사회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를 의미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적 차원의 가정복지의 목표이기도 하다. 가족의 응집성과 청소년의 심리적 복지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의하면 가족체계의 기능성을 높게 지각한 경우 가정생활만족도가 높고(정문자, 정현숙, 1994; 최규련, 1998), 자아존중감이 높으며(전귀연, 최보가, 1995), 우울 정도가 낮았다(박금희, 1986; 전귀연, 1996; 최규련, 1999).

2.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1) 생태학적 가정복지 연구모형 (Ecological Family Life Welfare Model)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 생태학적 접근법을 토대로 가족스트레스이론과 가족체계 모델을 고려하여 생태적 가정복지 모형을 제시하여 이를 가정복지 차원에서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와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 Bronfenbrenner가 인간발달연구에서 꼭 고려되어야 한다는 변인들을 포함한 Person-Process-Context-Time (PPCT)모형은 개인적 특성과 환경, 그리고 이들



<Figure 1> Ecological Family Life Welfare Model

의 상호 작용적 메커니즘을 발달의 시기를 고려하는 것으로 유기체의 발달적 특성과 다양한 환경을 동시에 포괄하여 가정복지 관련 연구에 있어서 유용한 연구 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 문제

<연구문제 1>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은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심리적 복지수준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연구문제 2> 생태학적 가정복지 연구모형이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와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유용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부산시내 소재한 대학교 1개교에서 1학년 학생 180명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 특성과(연령, 성별, 출생순위,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 현재 친구애착) 다양한 가정환경(부모 연령, 학력, 가정의 소득수준, 등), 그리고 관계적 특성(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을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최종분석에는 중요한 정보가 누락된 부적절한 대상자 9명을 제외한 총 171명(남학생 12명, 여학생 159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2. 연구도구

설문지는 대학생과 이들 부모들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 현재 친구와 애착,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스트레스 직면 시 대처방법, 심리적 복지 등에 관한 도구들과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과 친구애착은 부모와의 애착역사도구(Hazan & Shaver, 1992)를 바탕으로 전효정(2000)이 수정하여 제작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경

험을 안정형(Secure), 불안형(Anxious), 그리고 회피형(Avoidant)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와의 애착경험의 예를 들면 안정형은 '어머니는 대체로 애정과 이해심이 많으셨다. 언제 내가 도움이 필요하며 언제 나를 스스로 하도록 두어야 할지 잘 알고 계셨다.' 불안형은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셨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나를 이해해주지 못했고 적절하게 애정표현을 못해주셨다.' 회피형은 '어머니는 대체로 차갑고 애정이 없었으며, 나에게 독립적이며, 스스로 처리하도록 내버려두셨다.' 각 유형이 어느 정도 본인과 유사한지 스스로 유형을 분류하는 문항도 포함되었다.

스트레스 대처전략은 McCubbin, Olson, Larson(1982)의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Scale(F-cope)를 정문자와 정현숙(1994)이 개정한 문항들을 일부 대학생에게 적합하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요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처전략은 스스로 해결, 가족의 도움, 친구의 도움, 종교/전문가 도움, 파괴적 방법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Olson, Portner와 Bell(1982)이 제작한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척도(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Scales II: FACES II)를 정문자와 정현숙(1994)이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요인분석결과 요인 부하량이 낮은 4문항(6, 7, 8, 9번)은 제외하고 한 요인으로 묶어진 16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91이었다.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Olson과 Barnes(1982)의 삶의 질 척도를 바탕으로 한국 대학생에 적합하도록 수정하고 전반적 심리적 복지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을 추가하여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등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과 가족 응집성, 스트레스 대처전략, 심리적 복지 등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실시

하였다. 두 번째,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분석에 적용한 생태학적 가정복지 모형이 적합한지 측정하기 위하여 경로 분석과 모형 적합성(Goodness of fit)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유형경험과 대학생의 친구애착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 경험을 토대로 한 부모와의 애착을 살펴보면, 아버지와의 애착의 경우 43%(72명)가 안정형, 56%(93명)가 불안형, 그리고 1%(3명)가 회피형으로 보고하였고, 어머니와의 애착은 57.8%(96명)가 안정형, 41%(68명)가 불안 애착형, 1.2%(2명)가 회피형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 안정형(Secure), 불안형(Anxious), 회피형(Avoidant)의 비율이 60%, 20%, 20%인데 비하여, 아버지의 경우 안정형 애착(Secure)의 비율이 약간 낮고, 불안정 애착(Insecure) 중에서 회피형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불안형이었다.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이 비교적 엄하고 애정표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안형으로 주로 보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머니와의 애착은 안정애착 대 불안정 애착이 60대 40 정도로 기존 연구와 비율이 유사하고, 아버지의 경우와 유사하게 불안정 애착유형 중 대부분이 불안형이고 회피형은 거의 없었으며, 이는 중·고등학교 대상의 선행 연구결과와 일관성 있게 나타났다(전효정, 이귀옥, 2002).

현재 친구와의 애착을 살펴보면, 70%(117명)가 안정형, 11%(18명)가 불안형, 그리고 19%(32명)가 회피형으로 보고하였다. 이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여 안정형 애착 비율이 높고 불안형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Hazan et al., 1991; Hazan, Shaver, 1994; 전효정, 이귀옥, 2000, 2002). 대학교 1학년은 청소년기 마지막 시점으로 애착이 부모에게서 또래로 전이가 완성되는 시기로 애착이 진행되는 초기 청소년기 보다 안정형의 비율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과 현재 친구와의 애착은 각 유형에 있어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영아가 양육자와 관계에서 형성한 '내적 실행 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은 부모-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회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와 형성한 애착이 이후의 모든 대인관계에 기저가 되며, 환경의 변화나 중재가 없는 한 지속된다는 기존의 연구를 지지 하는 결과이다 (Bowlby, 1962; Ainsworth, 1978; Bowlby, 1988; Goldberg, 1991; Cicirelli, 1993).

2. 애착유형 및 환경적 변인과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법 및 심리적 복지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과 청소년기 이후 친구 애착이 청소년기 다양한 환경적 요소인 스트레스의 인식에 영향을 주고,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청소년들의 심리적 복지정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이론적 모형을 바탕으로 각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실시하였다.

Table 1에 의하면, 아동기 어머니와 애착경험이 안정적일수록 현재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높게 평가하며, 현재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았다. 반면, 유아기 불안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리적 복지수준이 낮았다. 이와 유사하게, 유아기 어머니와 회피형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와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아동기 아버지와의 애착경험에 있어서도 안정형 애착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 가족응집성과 심리적 복지가 긍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불안형과 회피형 애착수준이 높

<Table 1> Correlations of Attachment with Parent relationship and Family cohesion/adaptabi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심리적 특성 애착유형	아버지와 관계	어머니와 관계	가족 응집성	심리적 복지
아동기 어머니와 애착				
안정형	.192*	.317**	.360**	.284**
불안형	-.227**	-.334**	-.226**	-.297**
회피형	-.327**	-.395**	-.400**	-.357**
아동기 아버지와 애착				
안정형	.529**	.369**	.463**	.398**
불안형	-.401**	-.165*	-.390**	-.347**
회피형	-.425**	-.258**	-.312**	-.305**
현재 친구와 애착				
안정형	.206**	.190*	.297**	.210**
불안형	-.247**	-.146	-.277**	-.208**
회피형	-.049	-.098	-.237**	-.150

* p < .05 ** p < .01

을수록 각 변인들과 부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아동기 어머니와의 애착경험과 유사하게 현재 또래와의 애착유형도 관계의 인식과 심리적 복지와 유의한 상관성이 나타났다. 친구와 안정형 애착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을 높게 인식하고, 현재 심리적 복지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

다. 이에 반하여 친구와 불안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와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족 응집성과 현재 심리적 복지 정도도 낮았다. 친구와 회피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응집성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심리적 복지수준과 부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가정 환경적 변인들 중에서는 아버지의 교육수준만 심리적 복지와 유의한 상관($r=.175, p=.03$)을 보였으며, 다른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스트레스 대처방법 애착유형	스스로 해결	가족 도움	친구 도움	종교/전문가도움	파괴적 방법
아동기 어머니와 애착					
안정형	.207**	.392**	.047	-.070	-.042
불안형	-.132	-.245**	-.070	-.046	.049
회피형	-.049	-.281**	-.027	.028	.062
아동기 아버지와 애착					
안정형	.184*	.408**	.065	.056	-.085
불안형	.104	-.239**	-.098	.014	.209***
회피형	-.070	-.157*	-.139	-.022	.128
현재 친구와 애착					
안정형	.203**	.158*	1.66	.055	-.114
불안형	-.154*	-.051	-.166	-.100	.221**
회피형	-.051	-.041	-.177	.055	.193*

* p < .05

변인들은 유의한 관련이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애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서는 일부영역에서만 유의한 상관을 보일 뿐 대체로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일부 가족과 친구의 도움을 구할 뿐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파괴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아동기 어머니, 아버지와 애착에서 안정형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반대로 불안형과 회피형의 수준은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현재 또래와의 애착은 스스로 해결하는 대처 방법 사용수준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인다. 현재 친구와의 안정형 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안형과 회피형 수준이 높을수록 파괴적인 방법의 사용 정도가 높았다.

요약하면, 아동기 어머니와의 애착과 현재 친구와의 애착은 부모와의 관계 및 가족 응집성/적응성에 대한 인식과 유의한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스트레스 대처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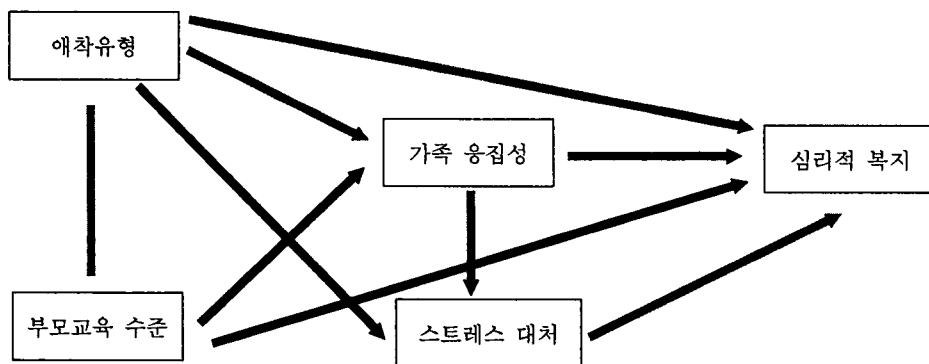
3. 생태학적 가정복지 모형의 적합성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를 설명하는 주요 변인들

간의 인과모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태학적 가정복지 모형에서 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토대로 각 중요변인들의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경로계수를 구하기 위하여, 먼저 가족 응집성을 종속 변수로 애착유형과 부모교육 수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다음 스트레스 대처를 종속변수로 애착과 교육수준, 가족 응집성을 독립변수로 두 번째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종속 변수인 심리적 복지를 종속변수로 모든 변수를 독립변수로 입력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각 경로계수를 산출하고 유의도를 점검하고, 전체 모형의 설명력과 유의도를 살펴보았다.

가족응집성을 예언하는 변수로 아동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애착경험이 각각 유의하였고(B=.409, p=.000, B=.239, p=.001), 애착과 부모교육수준이 포함된 모형은 R=.566으로 32%의 설명력이 있으며 모형은 유의하였다(F=17.303, p=.000). 스트레스 대처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은 가족응집성(B=.280, p=.001), 어머니와의 애착(B=.234, p=.002), 그리고 아버지와 애착(B=.225, p=.006)이었으며 모형은 35%의 설명력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8.455, p=.000).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를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으로는 가족의 응집성(B=.313, p=.010), 스트레스 대처(B=.166, p=.023), 아버지와 애착은 여전히 직접효과도 유의하였으나 어머니 애착은 유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정환경 변인



<Figure 2> Path Analysis Model of Psychological Wellbeing

중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긍정적 관련성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 모형 역시 전체 변량의 38%의 설명력이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었다($F=19.811, p < .01$).

일련의 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는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 현재 친구와의 애착이 가족의 응집성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에 차이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심리적 복지 수준이 달라진다고 하겠다. 생태학적 가정복지 모형에서 제시된 개인적 특성으로는 애착이 유일한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가정 환경적 변인 중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주요변인으로 영향이 있었으며, 가족의 응집성과 스트레스 전략이 매커니즘을 설명하는 과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보다 체계적인 가정복지 연구에 적용될 수 있는 연구의 틀로서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접근법을 토대로 개인적 특성과 다양한 환경적 특성, 그리고 이들의 상호 작용의 매커니즘을 동시에 고려하는 과정적 요인을 포함하고 발달적 시기의 특성을 고려한 Person-Process-Context-Time Model을 가정복지에 적용하여 생태학적 가정복지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를 분석하는데 실제 적용하여 모형의 적합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기 어머니와 애착경험과 현재 친구와 애착유형에 따라 현재 부모와의 관계와 가족 응집성의 인식에 차이를 보였다. 안정형 애착유형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는 긍정적으로, 가족 적응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불안정 애착유형(i.e., 불안형, 회피형)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가족 적응도 역시 낮게 나타났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법에 있어서 애착유형은 일부 스스로 해결, 가족 도움과 친구 도움의 사용에 있어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

다. 또한 애착유형은 현재 심리적 복지수준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유아기 어머니와 안정형 애착 경험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수준이 높고, 불안형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수준이 낮았으며, 이와 유사하게 현재 친구와 애착에서 안정형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고, 불안정 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가 낮았다.

이론적 모형에 대한 경로분석과 모형의 유의도 분석에 의하면, 아동기 부모와의 애착경험과 현재 친구와의 애착은 개인의 성격의 중요한 특성으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관계의 인식과 지각, 특히 가족의 응집성에 영향을 주어, 이에 따라 일상 생활에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영향을 주며, 이것이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생태학적 가정복지 모형의 적용은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의 연구에 있어 가족스트레스이론과 가족체계모형을 보다 확장하여 개인의 발달적 특성과 맥락을 함께 고려한 모형으로 미시적, 거시적 관점에서 조망이 가능하여 가족학, 사회학, 심리학적 접근을 망라한 다 학문적 시각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다 모형을 정교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인 용 문 헌】

- 김정옥(1995). 가족 스트레스, 가족 체제유형, 가족복지와의 관계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3), 101~112.
- 송혜림(2000). 가정생활에 대한 복지관점의 적용과 가정복지의 방향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31~41.
- 윤종희(2001). 가정복지의 생태학적 접근. 대한가정학회지 39(8), 93~105.
- 이영(1992). 인간발달 생태학. 서울: 교육과학사.
- 이영숙, 김정옥(2002).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133~159.
- 이승미(2000). 가정복지서비스의 모형과 실천방안에 관한 탐색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41~153.
- 전효정(1998). 한국의 배우자 선택과 결혼적응의 매커니즘: 인간발달 생태학적 모형의 중매, 연애 결혼에의 적용, 대한가정학회지 36(11), 19~41.
- 전효정, 이귀옥(2000).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이 청소년기 애착전이와 외로움에 미치는 영향: 애착전이모형 검증 중심. 대한가정학회지 38(1), 185~198.
- 전효정, 이귀옥(2002). 유아기 부모와의 애착경험이 청소년기 또래애착과 스트레스 인식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9(2), 191~210.
- 정문자, 정현숙(1994). 청소년의 긴장에 대한 대처 전략과 관련변인. 아동학회지 15(2), 3~19.
- 정현숙, 정문자(1995). 청소년의 긴장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8(1), 148~158.
- 최규련(1999).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모 및 자녀요인,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 자녀의 심리적 복지수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7(2), 99~111.
- Bronfenbrenner, U. (1994). 인간 생태학: 개념과 관점. 인간 생태학적 측면에서의 가정학.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 자료.
- Bronfenbrenner, U. (1994). Ecolog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In T. Husen & T. N. Postlethwaite(Eds.).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2nd ed.). NY: Elsevier.
- McCubbin, H., Olson, D., & Larson. A. (1982). 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Scale: F-COPE. In D. Olson(Ed.).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McCubbin, H., & Patterson, G. (1986). Adolescent stress, coping, and adaptation: A normative family perspective.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 Olson, D., Porter, J., & Bell, R. (1982). Family adaptability & Cohesion Scales II: FACES II. In D. Olson(Eds.).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 Russel, C., & Sprenkle, D. (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 family type,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